오늘에 맞는 '우리그림' 모색



자원스님 58X185cm 연화도 지본채색.

아카데미 선그림 제10회 회원전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2월 26일~3월 2일
불화 · 민화 · 단청 · 궁중화 등 분야 다양
선유 스님 · 고성은 등 작가 12명 참여해
전통 우리그림 창의적 재구성한 현대미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모색하는 전시가 열린다. 우리그림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인 아카데미 선그림(회장 이지현)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제10회 회원전 '우리그림 이야기'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선유 스님, 고성은, 김은정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불화와 민화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아카데미 선그림은 우리의 역사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서울 북촌에서 우리그림을 그리고 공부하는 일반인들의 모임이다. 아카데미 선그림의 회원들은 우리그림 특유의 은근한 멋과 깊은 맛을 해학적인 소재와 구성으로 재미나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그림은 궁궐이나 사찰뿐만 아니라 여염집의 안방과 부엌에서도 그려지고 새겨져 우리와 함께 생활해 온 그림이다.

'천개의 눈과 손을 자랑하는 자애로운 보살님', '금빛으로 탐스럽게 그려진 화중왕 모란' 등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아카데미 선그림의 그림은 엄숙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불화와 불교적 소재들을 지금 우리의 감성에 맞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또한 낡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림과 기법들을 창의적 소재와 재료들로 재구성한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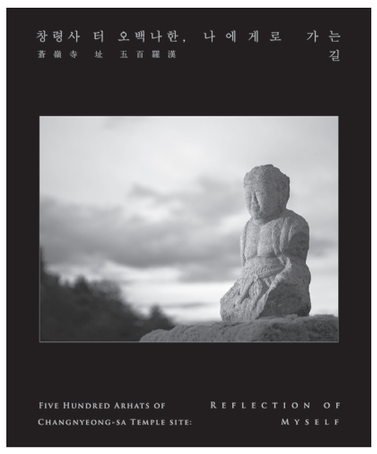
아카데미 선그림은 2009년에 창립된 선아트스페이스의 교육기관으로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채색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모임이다. 불호, 단청, 궁정화, 민화 등 우리의 옛 그림들을 현대의 우리 감성에 맞게 재창조하고 소재, 기법, 재료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접목하여 현재의 우리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카데미 선그림이 '전통채색화'를 모색하는 이유는 전통채색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옛 그림들은 보는 이, 받는 이를 위한 소망과 기원을 담는 그림으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치 불교의 이타행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카데미 선그림이 추구하는 그림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오늘날의 인류에게 미술을 치유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우리그림은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타형의 그림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카데미 선그림은 2009년 창립 후 지금까지 매년 정기회원전을 열어왔다. 이번 열 번째 정기회원전은 아카데미 선그림의 지나온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하는 전시다. 종교,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다양한 회원들이 우수한 우리그림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전시다. (02)733-0730.

도록으로 만나는 창령사 터 오백나한

국립 춘천博 '창령사 터 오백나한' 특별도록 발간



창령사 터 오백나한 특별도록 표지.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정리
200여 컷 사진 · 글 미공개 사진도
이근배 시인, 전상국 소설가 등 참여
휴정 등 조선시대 고승들 선시도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특별도록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도록은 2018년 특별전을 통해 소개되면서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게 된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도록은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집중적으로 다룬 첫 번째 사진집이다. 미소띤 나한, 생각에 잠긴 나한, 합장하는 나한, 바위 뒤에 앉은 나한, 노을 속에 서있는 나한, 달빛에 물든 나한 등 오백나한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오롯이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200여 컷의 이미지와 관련된 글을 실었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 사진들이 포함됐다. 전시를 통해 볼 수 없었던 나한들을 볼 수 있어 특별도록 발간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이근배, 정현종 시인, 전상국 소설가가 오백나한을 마주하고 쓴 글과 휴정을 비롯한 조선시대 고승들의 선시를 수록했다.

특별도록 발간과 함께 올해부터 상설전시로 공개된 새로운 전시 '창령사 터 오백나한_나에게로 가는 길'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참여형 전시로 꾸며져 있어 관람객이 오백나한 사이에 '소망 기원 돌탑'을 쌓을 수 있다. 정성스럽게 쌓은 아기자기한 돌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1년 발굴된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2018년과 2019년 특별전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춘천과 서울, 부산까지 2년여에 걸쳐 개최된 특별전을 통해 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관심은 상설전시('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춘천박물관의 상설전시는 기쁨, 슬픔, 희망, 분노 등 우리들 일상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오백나한과 나에게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는 공간이다. 다른 문화재에서 느낄 수 없는 오백나한의 독특한 매력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다.

오백나한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오백의 성인을 말한다. 부처님 재세 시 수제자 및 부처님 열반 후 제1차 결집과 제4차 결집을 수행한 장로비구 오백 명을 말한다. 후대에 존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경전에 전하는 해당 장로들의 기사들이 존상 제작의 근거가 되었다.

박재완 기자

세계유산 부여 정림사지 주민에게로

부여군, 3월 20일부터 무료 야간개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 정림사지가 무료 개방된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문화재 보존 · 관리와 더불어 문화재에 숨결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문화재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정림사지를 오는 3월 20일부터 무료로 야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야간개방 운영 시간은 하절기(3~10월)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며 동절기(11~2월)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다. 야간 개방에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정림사지를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정림사지 박물관은 제외된다.

부여군은 현재 정림사지 이외에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인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능산리고분군도 내년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단지 문화재 보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문화재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야간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경자년 신도용 신작 찬불가 333곡 선집' 발간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산하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작찬불가 통권 제35집 〈경자년 신도용 신작찬불가 333곡 선집 · 곽영석 엮음〉을 발간했다.

책은 위원회의 작사, 작곡, 가창지도, 합창단 회원들의 재능보시로 만들어진 연간집이다. 책에 수록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 개개인에게 귀속되며, 악보관리는 발행 후 20년간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가 관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불자 저작인은 사무국(02-25-3002), 전용메일(kbm0747@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완 기자

복과 덕 지혜의 불교 - "부지런해야 복이 크고 베풀어야 덕이 자라며 배워야 지혜가 난다"

2020년 제 5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3월 5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강좌)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②불교예술과 문화 ③선불교 ④근본불교 ⑤반야사상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경일대종사(학장), 최종석, 이미령, 윤열수, 법인스님, 김호귀, 최봉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대승불교 ⑪정토사상 ⑫화엄경
	교수진	황순일, 김경집, 김상영, 차차석, 최봉수, 최종석, 김선희

• 모집인원 : 100명(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내외)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 3월 5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문 의 : 02)732-1206
※ 졸업생은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학과 개강일시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오전 10시
• 전통범패의식 3월 4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 3월 7일(토) 오후 2시

불교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불교기본교리 3개월 과정 : 3월 7일(토) 오후 2시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http://www.dongsnabud.net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강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